

# AI사관학교 전국적 인기...5기 경쟁률 2.2대1

## 단계별 절차 통해 내달 초 330명 최종 선발 성적 우수자 CES 참관...취·창업 연계 지원

‘인공지능(AI) 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8일 “인공지능(AI) 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I 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AI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AI 현장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성형 AI 등 최신 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

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I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AI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다. 1차 서류 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 과정 이수(320시간), 역량 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 과정을 포함해 AI 이론·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간 1천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AI 모델링 등 분야별 AI 전문가로 성장, 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 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맞춘 특화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 습득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 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가 특강 ▲AI 창업기업 및 현지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AI 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수료자 4명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CES’를 참관할 기회를 준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사관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심화 이론 학습 뿐만 아니라 AI 기업과 협업해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 교육 등 탄탄한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며 “AI 사관학교 5기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도가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도로 파임(포트홀) 위험 구간 11개소(10km)를 정비한다. 사진은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3월 포트홀이 발생한 지방도를 보수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제공>

## 재난관리기금 20억 긴급투입 포트홀 정비

전남도는 8일 “최근 급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1천435건으로 지난해(492건)보다 약 3배 넘게 급증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포트홀 위로 지나가면 바퀴나 휠이 파손되거나 순간적으로 핸들이 틀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도가 지방도와 위임국도 2천954km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구간 45km에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0개 구간 7.9km에 2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도로 파임과 균열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남은 구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추가 투입, 긴급 보수를 추진키로 했다. 사업 대상지 11개 구간 10km는 우기

이전인 5월 말까지 보수를 계획이다.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질삭 후 고강도 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수가 필요한 27.1km의 남은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이경중 전남도로관리사업소장은 “재난기금을 통한 포트홀 정비로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취약 구간 일부가 해소될 기대한다”며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해 안전을 유해하는 요소 발견 즉시 응급 조치하고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지속 확대해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83억 지급

전남도, 2021년 4월 가입자 1천167명 만기적립금 전남도는 8일 “2021년 4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1천167명에게 만기적립금 8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받도록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비(738명) ▲취·창업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에 만기 적립금을 활용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엔 혜택을 받은 청년은 2021년 가입자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적립한 금액 360만원을 도와 시·군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저축액의 2배인 720만원과 이자가 추가 지급됐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비(738명) ▲취·창업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에 만기 적립금을 활

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시작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현재까지 6천73명의 선정 청년 중 타 시·도 진출자들을 제외한 3천300명이 만기 적립금 247억여원을 수령했다. 전남도는 4월 중 신규 대상자 1천500여명을 모집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신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도내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꿈을 실현하도록 맞춤형 지원시책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

市, 50곳 표본 점검...위치 부적정 등 95건 적발 광주시는 8일 “지난 3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장 5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 기준 미준수와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총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AED 설치 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비치 현장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 미설치·위치 부적정 ▲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효기간 초과·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관리 실태 점검 때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완료했다. 또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뒤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 할 계획이다. /박선강기자

## 道,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모집

전남도는 8일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벼·과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마을이다.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마을은 총 57개소다. 생태마을 지정을 바라는 마을은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 신청 검토 등을 통해 도에 추천하게 된다. 전남도는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025년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양시원기자

###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1개월분(30포) : 148,000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주) 보람 약품**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한은

**시 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